

갤러리 색즉시공



금강산 구룡연

‘통일의 그날’ 기다리며

양지바른 곳에서는 얼음 녹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바지락 댄다. 어느 가파른 비탈길에서 만난 북한 안내원에게 손을 내밀며 부축을 청했는데 처음엔 무표정하더니 나의 웃음 띤 얼굴에 동화되었는지 힘 있게 손을 잡아주며 “조심해서 내려 가시 라요” 라며 보여준 친절함에 잠시나마 겨레의 뜨거운 온정을 느꼈다.

스케치한답시고 일행 중 늘 말미에 떨어져 있어 뒤를 쫓아 다니는 데 여념이 없더니 삼삼암 근처에서 “차 한 잔 팔아 주시 라요” 애원하던 북한 여인을 외면하고 돌아온 것이 못 내 마음에 걸린다. 어서 통일이 되어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인다.

그림 · 글·임무상



나를 망치는 것은 내 자신의 ‘탐욕’

Buddha in Comic & Ani

⑦ 마나베 쇼헤이의 <사채꾼 우시지마>



마나베 쇼헤이의 <사채꾼 우시지마>권 표지

사채로 대변되는 대부업은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됐다. 현대인이 가장 많은 여가 시간의 도구로 활용되는 TV, 특히 케이블과 위성 방송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같이 세련된 대부업 광고가 많이 송출되고 있고, 지하철 광고로도 만날 수 있다. 심지어는 한 유명 대부업체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자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2~3년 전에는 사채를 다룬 동명만화를 드라마화한 ‘쩐의 전쟁’ 공전에 히트를 친 적도 있다. 일본 정부의 사금융 제재로 사채 경기가 나빠지자 대규모 야쿠자 자본이 한국에 흘러들어와 한국 사채 경제를 장악했다는 믿기 힘든 루머도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이

야기가 됐다. 이제 대부업, 사채라고 하는 금융업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상품이 됐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은 자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명제는 날이 갈수록 현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 만화 ‘쩐의 전쟁’을 말했는데, 만화 천국 일본에도 비슷한 주제의 만화가 있다. 바로 마나베 쇼헤이의 <사채꾼 우시지마>다.

한국의 ‘쩐의 전쟁’이 평범한 인간이 사채꾼으로 입신양명하는 모습을 그렸다면, <사채꾼 우시지마>는 자본으로 피폐해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잔인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실제 <사채꾼 우시지마>는 인간의 탐욕과 그 폐해로 인한 파멸을 보여주는 일명 ‘시궁창 만화’ 중에서 <도박묵시록 케이지>와 더불어 수작으로 손꼽힌다.

<사채꾼 우시지마>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다. 대부업체 ‘카우카우 파이낸셜’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주부, 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군상들은 대부분 도박과 여자,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돈을 빌린다.

일본의 법정 최고 금리는 24% 가량. 하지만 주인공 우시지마가 운영하는 카우카우 파이낸셜은 금전을 내주는 대신 특별히 ‘실오’ 즉, 열흘에 50%를 받는다. 5만 엔 빌려주고 선이자 1만5,000엔에 수수료 5,000엔을 떼고, 1일 이자가 1만5000엔, 2일이면 원금회수, 받을 돈은 그대로 5만 엔. 말도 안 되는 살인적 금리지만, 우시지마는 아쉬울 게 없다. 금전을 요구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채꾼 우시지마>는 절대로 사채업의 돈이 어떻게 흐른다, 어떻게 운영된다는 자세한 정보를 보여

주지 않는다. 도리어 채무자들에게 어떻게 돈을 회수하는 지에 중점을 둔다. 사실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냐’가 더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이다. 제3자 입장에서 담담히 보여주는 회수과정에서 바로 ‘사채꾼’의 공포가 있다.

사채꾼이 설치한 밧에 걸리는 사람들은 애초 현대 신용사회에서 탈락한 군상들이다. 허영심에 빠진 명품족 여성, 천재라고 생각하는 은둔형 외톨이, 갇혀 나오려 못하는 인생을 살려하는 양아치, 손쉽게 돈을

사채업자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본주의 디스토피아’ 그려 탐욕에 허우적 대는 사람들 ‘인수정등’의 비유가 연상돼

빌고자 하는 직장인 등은 곧 우시지마의 고객이자 노예가 된다.

우시지마가 자신의 고객(?)들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은 매우 가혹하다. 매춘, 마약, 구걸은 기본이고 인신매매도 서슴치 않는다. 애초 신용까지 제로의 인간을 교환까지 제로의 인간이 될 때까지 철저히 부려먹는 것이다.

노예들은 돈 앞에서 마음이 급해진다. 당장 그 돈이 없으면 큰일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생긴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주인공 우시지마는 알고 있지



<사채꾼 우시지마>의 한 장면. 우시지마는 사채를 회수하기 위해 신용제로의 인간을 교환까지 제로의 인간이 될 때까지 착취한다. 돈의 노예들은 자신의 허영과 탐욕에 빠져 우시지마에게 돈을 빌린다.

만 채무자들은 모르는 사실이다. 애초 문제는 채무자의 탐욕과 허영이지만 노예들은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답을 한다.

분명 탐욕은 우리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심신을 해치는 독(毒)이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탐욕에 허우적 대는 군상들의 모습에서 <불설비유경>의 ‘인수정등’을 찾아볼 수 있다.

황량한 벌판을 걷고 있던 나그네가 갑자기 나타난 성난 코끼리에게 쫓기게 된다. 나그네는 병풍을 타고 우물로 피신해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한 순간, 우물 안벽에는 독사 네 마리가 포아리를 틀고 있었고 아래에는 독룡이 나그네가 떨어질지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나그네는 병풍을 의지해 버티고 있었다. 그 순간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 병풍을 갠아먹기 시작했다. 쥐를 쫓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찰나, 어디선가 떨어진 다섯 방울의 꿀에 나그네는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만다.

이 비유는 불교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준다. 나그네는 인생을, 성난 코끼리는 무상함을, 우물은 사바세계를, 나그네가 의지한 병풍은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며, 이를 갠아먹는 쥐는 아침과 밤, 부질없이 흐르는 시간이다. 그런 와중 나그네의 얼굴에 떨어진 꿀 다섯 방울은 재물, 애욕, 수명, 음식, 명예에 비유된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그려지는 채무자들은 인생을 담보로 ‘꿀’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같다.

많은 제테크 서적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제테크로 포장된 자본주의는 결국 많이 가짐으로서 주인공임을 이야기한다. 진정한 소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큰 의미에서 ‘인수정등’의 비유일지 모른다. 소비와 욕망의 굴에 속아 진정한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범**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불공예식범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전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전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전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승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전라도 : 011-248-6298  
충청도 : 010-8674-23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양지 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